



3면

문 대통령 "다수출규제 잘 극복 글로벌 소·부·장강국 도약"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음 5월 20일) 제2575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근무자 안전 최우선 · 철저한 방역망 유지”

송 지사 익산 · 고창 선별진료소 방문, 애로 청취 마스크 쓰기 · 손 씻고 소독하기 · 거리두기 당부

전북도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지난 1월말 발생한 이후 6개월여 지나 장기화된 시점에 송하진 도지사가 일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격려에 사달리는 보건공무원들을 격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9일 익산보건소와 고창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차례로 방문해 방역 최일선에서 무더위와 피로 누적에 맞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방역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장 방문을 자제했던 송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쳐가는 보건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망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특히 이번 방문은 최근 대전과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도내에도 감염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인근 방역의 최일선 지역인 익산 시와 고창군을 택해 진행됐다.

송 지사는 이날 시군 보건소장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등 현장상황을 보고 받고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방역 시설과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 근무자들을 만나 일일이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의 견을 내렸다.

송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건강과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전북을 지키는 방역 최일선 보건기관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철저한 방역망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나서달라”며 “대민서비스

스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송 지사는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고 소독하기, 거리두기 실천하기 등 기본 3원칙만 잘 준수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앞서 울어름 기록적인 폭염과 이른 장마가 예고됨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비(3,600만원)와 냉방용품(2,800만원) 구입비를 지원했다.

또 현장 근무자를 위해 쉽게 착용할 수 있고 통기성이 좋은 수송용 가운 세트와 안면 보호구, N95 마스크, 장갑 등 4종 모두 4,900개를 도내 선별진료소에 배부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일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및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익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차례로 방문해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보건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반도 ‘간척자료’ 공모 새만금개발청, 10월 10일까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2023년 7월 개관 예정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소장 전시할 자료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증, 위탁운동에 이어 올해는 한국 간척 및 간척지역사 자료 수집 공모전을 개최해 다양한 자료 확보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은 공모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변주승)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 지자체(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0일~10월 10일(3개월)까지 진행돼 한반도의 간척역사가 문헌에 등장하는 고려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록물, 기념물, 간척생활유물을 접수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삼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간척사업 관련 자료 △간척지에서 삶을 개척해 온 주민들의 생활사 자료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기록물, 증거물 기념물 등으로 간척사업을 증빙할 수 있는 유물 사진 영상 시공 장비 및 비품, 생활자료 등 유·무형의 모든 자료가 해당하며, 해외 간척자료도 포함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대, 논문 질적수준 · 인용횟수 ‘국내 최상위’

2020 라이덴랭킹 ‘거점국립대 1위’ 영예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0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의 인용 횟수 상위 10% 논문 비율에서 거점 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는 14위다.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과학기술연구센터(CWTS)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세계 1,176개 대학의 과학기술 영향력을 평가한 것이다.

설문조사 방식 등 주관적인 평가 요소들을 배제하고 최근 4년 간 Web of Science를 활용해 ‘인용횟수’라는 객관적 지표만 5개 학문 분야

별로 평가했다.

이는 대학이 발표한 논문이 세계 학계에서 많이 인용되고 질적 수준도 매우 높다는 의미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전체 논문수가 지난해보다 88편이 증가한 3,282편이었고, 5개 평가 학문분야 중 생체화학 및 보건화학 생명 및 지구과학, 수학 및 컴퓨터과학 부문에서 논문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가 연구 경쟁력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는 세계적 논문을 쓰기 위한 교수들의 열정과 대학의 지원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정은성 기자

도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전북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개설, 코로나19 안전 위생요소 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도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촬영 안전신문고 앱(App)이나 포털(safetynetport.go.kr)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 위생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확대 운영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해오다 지난 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다시 주민신고 대상을 넓히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민 누구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사항 ▲고위험시설 행정조치(집합제한·금지 등) 미준수 사항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이탈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등) 수칙 위반 사항 ▲그 외 방역에 취약한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하거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안사항까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이번엔 새로 개설된 ‘코로나19 신고’ 탭을 눌러 신고, 기타 안전신고는 기존대로 ‘일반신고’ 탭에서 신고하면 된다. 추후 신고자는 그 처리 결과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서 안내받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코로나19 안전신고 제도가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 · 일요일 신문 쉽다.

IMSIL-GUN
임실군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